

## 0. 우로보로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문제발생 → 문제해결 → 새로운 문제의 발생”의 구조로 끝없이 순환한다. 인간이 끝없이 과거를 부수고 나아가야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보의 언어는 매혹적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발전에도 인간에게 완전함이라는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진보주의자들은 영원한 진보를 외치거나 “아직”이라 말한다. 진보의 형태는 제 꼬리를 문 뱀과 같다. 영원하고, 파괴적이다. 결국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만 같고,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자신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한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은 같은 구조를 가진 채 말의 위치만이 바뀌는 보드게임 같아 보인다. 새로운 판이 시작되고 그러나 룰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달라짐을 바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 책을 통해 전혀 다른 게임을 시작 할 준비를 한다.

## 1. 서문 요약

저자는 《계몽의 변증법》 서문에서 계몽(현인류의)을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sup>1</sup>라 지칭한다. 계몽은 기본적으로 미완성의 상태를 완성의 상태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이 아름다운 움직임 속의 폭력성에 주목한다. 근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계몽주의는 유럽전역으로 널리 퍼진다. 계몽은 객관성을 담보로 평등, 혁명, 억압에의 저항, 권위의 타파와 같은 과거의 우둔함을 깨부순다. 부정을 부정하여 긍정을 도래시킨다는 원리이다. 저자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계몽의 지칠 줄 모르는 자기 파괴’<sup>2</sup>라 지칭하며 계몽 이후를 바라보지 않는 결과적 계몽에 대해 비판한다. 하나의 사상이 이전의 사상에 반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사상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계몽은 목적지를 가지는 순간 사회의 변증법적 과정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닌 결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거나 혹은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긍정의 변증법은 또 다른 것의 부정을 불가결한 원칙으로 가지게 된다. 이는 계몽이 ‘기존의 사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목표지점에서의 보다 빠른 도달을 위해 진보는 왕도를 만들고, 왕도를 벗어난 ‘언어’는 자리를 비운다. 이는 계몽이 퇴보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여겨지는 경제적 진보는 자본가들에게 우월성을 부여함으로 개인을 무력화하여 조종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면을 가진다. 자유라는 명목 하에 인류는 저항 수단을 박탈당한 것이다. 사회적 진보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물질적 진보는 정작 사회적 진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다. 이때 계몽은 더이상 그 자신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상품화

<sup>1</sup> Th. W. 아도르노&M. 호르크하이머, 《Dialektik der Aufklärung-Philosophische Fragmente》, 《계몽의 변증법-철학적 단상》, 김유동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p.12

<sup>2</sup> 위의 책, p.13

된다. 계몽이라는 이름에 ‘사실’<sup>3</sup>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은 허식주의로 터부시되고 ‘정신’은 어둠 속에 갇힌다.<sup>4</sup> 저자는 개명된 신화에 불과한 계몽이 아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될 사유에 집중해야한다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계몽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계몽을 염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계몽의 변증법>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계몽의 변증법>의 첫번째 장인 <계몽의 개념>은 책 전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 장에서 행해지는 ‘계몽’의 비판은, 맹목적인 지배에 연루된 상태에서 ‘계몽’을 풀어내어줄 ‘계몽’의 긍정적 개념을 마련한다. 첫번째 장의 명제인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는 이어지는 두 가지 <부연 설명>의 토대가 된다. 이 <부연설명>은 자연을 인간 주체의 발 밑에 두려 하는 계몽의 맹목적 객체성이 지닌 오만함과 이로 인한 사유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연설명>을 잇는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계몽이 문화산업을 통해 어떻게 상품화되는가를, <반유대주의의 요소들>에서는 계몽된 문명이 현실에서 어떻게 야만상태로 회귀하는가를 보여준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스케치와 구상들을 묶어 미처 다루지 못했으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기록한다.<sup>5</sup>

## 2. <계몽의 개념> 요약

예로부터 계몽의 목표는 “공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저자는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고 명료한 피사체를 바라보려는 계몽의 방식을 ‘탈마법화’라 명명한다. “실험철학<sup>6</sup>의 아버지” 베이컨은 인간의 우월성을 ‘(과학적)지식’에서 찾는다.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베이컨에 대해 저자는 드 메스트르의 말을 빌려 “등급의 우상”을 지니고 있다고 조소한다. ‘탈마법화’의 전제가 되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 이외의 자연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판단하게 만든다. 모든 존재를 주체 속에 끌어안으려 하는 동일성의 방식은 오히려 그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신화의 핵과 맞닿아있다. 신화는 믿음이라는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침과 훈육을 방법으로 한다. 동일성의 추구는 그 자체로 위계질서를 만들고 지배자(각성한 자)에게는 힘을 피지배자에게는 소외를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계몽은 신화와 다른 방향으로 기대어 서서 서로를 지탱하는, 혹은 서로 다른 면을 가진 한 장의 종이 형태가 된다. 신화를 벗어나고자 하였던 계몽은 지배의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의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었다. 이는 신의 피지배자들이 결코 신의 ‘지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신’의 지배를 싫어한 것임을 증명한다. 신화를 파괴하기 위해 신화의 방식인 ‘ 획일화 Konformität’를 차용한 계몽은 계몽에서 나오된 것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승리를 만끽하고자 한다. 그러

---

<sup>3</sup>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성, 추상과 명분을 버린 실리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자는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사실’의 ‘투명성’을 “친숙성과 함께 개념화의 노고를 피하는” 신화적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sup>4</sup> 위의 책 참조 p.16

<sup>5</sup> 위의 책 p.18

<sup>6</sup>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수행되는 철학. 실험철학에서 철학자는 직관을 배제하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에 대해 탐구하기를 요구 받는다. 따라서 실험철학에는 추상적 명제를 통해 진리를 찾아내는 기존의 철학에 비해 참과 거짓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나 자연을 피지배자로 만들어 힘을 행사하며 얻게 되는 것은 힘이 행사되는 대상으로부터의 ‘소외’ 다.<sup>7</sup> 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취하는 지배로 이어지고 또 다시 자연이 인간에게로 행하는 지배로 이어지게 된다.

저자는 지배의 끝없는 알레고리를 “미메시스<sup>8</sup>”로 극복하려 한다. 주술에서 접신은 ‘현존재Dasein’와 ‘실재Realität’를 덩어리째 구분하며 발생하는 ‘자연의 통일성’ 혹은 ‘주체의 통일성’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무당은 마귀를 쫓기 위해 마귀와 유사해지려 한다. 그들은 마귀와 유사하게 행동하지만 마귀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지배를 ‘닮은 모습Ebenbild’이 아니고, 따라서 ‘자기 동일성’을 무기로 하여 피지배자의 질(質)을 앗아가지도 않는다. 신화와 계몽이 속한 종이의 이면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주술에서 희생제물은 특수한 대표성을 가진다. ‘교환될 수 없는’ 것을 상징으로 대체하여 ‘교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학에서 희생은 더이상 상징성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든 대체될 수 있다. 더이상 ‘교환 불가능’한 것은 없다. 계몽은 신화를 파괴하기 위해 신화의 모든 방식을 차용하였다. 특히 민간 신앙 이후의 신화와 근대 이후의 계몽은 불가공약적인 것을 배제하고 획일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개인’이라는 모순은 이 원리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이 빠진 톱니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이 진보를 위해 자기부정을 긍정하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자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의 강압을 분쇄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더욱 깊이 자연의 강압 속으로 빠져”<sup>9</sup>드는 역설이 유럽 문명이 걸어온 길이라 분석한다. 미메시스는 세계를 주체의 단일색으로 뒤덮는 ‘투사’와 달리 개인을 세계의 안으로 들여보내 각 주체의 색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세계를 미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언어는 진실이 된다. 그러나 정의를 찾으려는 계몽의 노력은 결단코 그 이면을 동시에 회수한다. “유스티타의 눈을 덮고 있는 안대는…정의가 자유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sup>10</sup>

계몽은 기호와 형상을 분리한다.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기호로서의 문자는 본래 문자로서의 문자가 가진 예술성과 대비된다. 기호로서의 문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저자는 예술과 과학을 대립시키는 태도가 예술마저 과학적으로 변화시키며 단순한 모방에 불과한 예술, ‘진정한 예술 작품’ 일 될 수 없는 예술로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예술 작품과 주술은 모두 관계망을 벗어난 “독자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영역”을 갖는다. 또한 “특수자 속에서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술의 핵심이 상징이 된다. 바로 이 지점, ‘대체불가능성’에서 ‘아우라’가 발생한다. 저자는 예술이 존재하는 곳에 학문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돌이킬 수 없는 ‘기호화 형상의 분리’는 상징성의 해체이며 진리의 해체이다. 이 분리는 예술을 통해서만이 극복될 수 있다. 저자에게 계몽은 전체주의적이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계몽의 진리는 사유를 기계화한다. 과학에게 미지는 재앙이기에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파악하게 한다. 이는 “특정한 부정”에 대한 회피이고, 인식의 포기이다. 단순한 단어반복에 불과하게 된 사유는 단절된 ‘부분’을 전체로 뭉뚱그린다. 산업주의는 모든 것에 가장 먼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활성화시킨다.

---

<sup>7</sup> 위의 책 p.30

<sup>8</sup>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미학에서 다뤄지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객체와의 동화’로 확장한다.

<sup>9</sup> 위의 책, p.37

<sup>10</sup> 위의 책, p.42